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9호 【루계 제26173호】 주체107(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현지말씀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온 도가 대고조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함경북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업의 잠재력이 큰 함경북도가 일떠서야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도를 나라의 믿음직한 기간공업지대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위대한 정신력을 총발동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새긴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창신하고 방법론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도, 시, 군, 구역, 공장, 기업소당조직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로 들끓고있는 증요전투장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뜻깊은 올해 증산돌격운동을 호소한 당의 뜻을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곳곳에 광범한 대중을 증산돌격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 직관선전관들과 전투적인 구호들을 게시해놓고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도안의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집중강연선전대와 기동예술선동대들을 파견하여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게 하고있다. 또한 강습과 경험발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이는 한편 각급 당조직들에서 방송선전차활동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강화하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일군들이 대중을 증산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게 하고있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큼직큼직한 대상들을 맡아안고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솔선 어깨로 들이밀어 풀어나가면서 화선식경제선동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이들은 어랑천4호발전소건설장과 업분진호텔건설장을 비롯한 전투장들에 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로 대중을 이끌면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철공장, 청진강제공장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라남의 봉화, 성강의 봉화를 지펴올렸던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새로운 방식의 쇠물정련체계확립과 합금철로건설, 원호식련속코크공정확립 등 금속공업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은 도안의 모든 부문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서두수발전소, 경성애자공장, 경성도자기공장,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 화대광산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에서도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활신하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발전소건설성과 계속 확대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에서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여러 대상의 발전소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세포지구에 달려나온 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은 최근 한달동안에만도 수만㎥의 발전소언제성토과제를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련합기업소아래 설비조립사업소의 로동계급은 굳인 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자강땅에 능력이 큰 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또 한개의 대형수문을 성과적으로 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건설장마다에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여러 대상의 발전소건설을 동시에 추진시키는데 맞게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세포지구 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절사판쉴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련속공격,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타임직장과 굴착직장의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언제심벽기초굴착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중기계직장과 건설기계화사업소, 수송직장의 전투원들은 실정에 맞게 설비판리, 기술판리를 짜고들어 가동중에 있는 굴착기와 삽차, 불도젤과 로라다짐기마다에 만부하를 걸고있다. 특히 운수직장의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이 종전보다 2배이상의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며 언제성토공사를 다그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시추직장의 로동자들도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매일 맡은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자강도에 달려나간 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또 한개의 대형수문을 성과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설비판리운영과 정비보수를 보다 질적으로 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미 여러대의 문형기중기와 위수구수문권양기, 발전기실의 천정기중기조립과제도 훌륭히 완수한 이들은 충천한 기세로 발전기실의 내부전기공사에서도 전진을 이룩하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련속공격해나가는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여러 대상의 발전소건설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을 위한 원격교육체계 개설, 활발히 운영

과학기술전당에서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의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의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을 위한 원격교육체계를 개설하고 활발히 운영해나가고있다.

이 원격교육체계는 각급 단위의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이 과학기술정보학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과 과학기술보급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것으로서 과학기술전당홈페지에 개설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여 그쯘하게 형성되고 계속 확대되고있는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망이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직접 맡고있는 보급일군들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전당의 사명과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고게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실천적성과로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전국의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을 위한 원격교육체계를 개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과의 창조적인 협동작전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짧은 기간에 원격교육체계를 훌륭히 개발하였다. 이 체계는 크게 과정안집행을 위한 학습실과 과학기술보급상식, 과학기술보급실천, 알리는 소식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는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은 과학기술정보학, 전자도서관, 콤퓨터응용과 같은 필수과목들과 여러가지 선택과목들을 단기강습의 형식으로 배우게 된다.

지난해 4월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원격교육체계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이 망라되여 공부하고있으며 그 가입자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철도국, 어대진대경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많은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이 이미 강습과정안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이들은 원격교육체계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을 위한 원격교육체계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속 갱신해나가고있다.

전국각지의 수많은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는 원격교육체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나라의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량강도의 농촌들에서 감자캐기 결속

량강도안의 농촌들에서 감자캐기가 결속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감자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드높은 열의속에 도에서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적기에 영농작업을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갔다.

한편 농장들에서는 날자별, 포전별로 감자캐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삼지연군에서 감자수확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당의 은정어린 농기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완비하고 전투에 진입한 이곳 기계화초병들은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고 뜨락또르, 감자수확기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여러 영농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대홍단, 백암군의 농업근로자들이 로력과 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한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날마다 감자수확면적을 넓혀나갔다.

삼수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서리피해를 받을수 있는 지구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감자캐기를 결속하였으며 갑산, 풍서군안의 농촌들에서는 비탈밭이 많은 특성에 맞게 기계수단과 축력을 배합하여 감자캐기를 적극 내미는 한편 윤반대책을 철저히 세워 말짐이 거두어들이였다.

농장사이, 작업반사이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혜산시, 운흥군에서도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생산지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일정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농사를 함께 책임진 림장에서 당면한 영농전투를 성의껏 도와주었다.

특파기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관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현대적인 인조털생산기지건설 적극 추진

선교편직공장에서

선교편직공장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인조털생산기지가 일떠서고있다.

제직, 염색, 건조, 후처리 등이 흐름식으로 된 현대적인 인조털생산기지가 꾸려지면 편직공장, 신발공장 등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 국내자재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다종다양하게 생산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성 일군들과 선교편직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공업성 편직공업관리국에서는 현대화에서 중핵은 국산화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새로운 생산공정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다그치는 원칙에서 해당 단위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공정설계를 하고 설비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 기본제직설비인 대환기로부터 염색기, 열처리기 등 거의 모든 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기 위한 방도들이 탐구되고 련관단위들과 힘을 합쳐 본격적인 설비제작에 진입하였다.

선교편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현대적인 인조털생산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울 열의에 넘쳐 건물개건공사와 설비제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새 기술창안에서 큰 몫을 맡아하고있는 4.15기술혁신돌격대가 대환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제작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연구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상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전동장치부분과 천당김장치부분, 조종부분에 대한 설계를 맡아수행한 책임기사 리철희동무는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반대환기를 인조털대환기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조한 대환기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염색설비와 필검사기, 검사측장기제작을 맡은 평양신발기계공장에서도 제작전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경공업성 방직기계공업관리국 산하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높은 제작기술을 요구하는 깔바늘개발을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현대적인 인조털생산기지를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선교편직공장과 련관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증산돌격운동의 불길 드높이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 초과완수

건설건재공업성아래 20여개 단위들에서

온 나라에 증산돌격운동의 거세찬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 건설건재공업부문에서도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중순까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와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건설건재공업성아래 20여개 단위들이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건재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건설건재공업성 당조직에서는 정무원들이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김철의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와 설비조립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9월말까지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각각 150%, 13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철의 주체화대상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 이곳 련합기업소들의 로동계급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드높이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에서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화학건설련합기업소와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봉산화학건설사업소, 화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자기들이 맡은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실천적성과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본때와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발전소건설과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대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혜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수력설비조립사업소, 북창발전소건설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공사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건재생산을 담당한 건재공업관리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현재 150%이상 넘쳐 수행한 기세로 중요대상공사장들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관리국아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세멘트생산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건설용자재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세멘트생산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첫달 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여 공화국창건 일흔돐까지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40%이상 초과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흥목재가공공장과 순천보온재공장, 청진스레트공장, 함흥휴관공장 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상건설장들에서 요구하는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맹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년간계획완수자대렬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의료용산소생산에 박차를

보건산소공장에서

보건산소공장에서 년간 의료용산소생산계획을 110.6%로 넘쳐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인민보건실천에 이바지하는 질좋은 의료용산소를 더 많이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년간생산과제를 앞당겨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특히 김정철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종업원들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의료용산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창조투쟁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일군들은 자주 기술자, 기능공들을 만나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누구나 새 기술의 창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일터마다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이 세차게 벌어지는 속에 공장의 종업원들은 날씨가 무더운 삼복철에도 위생학적기준에 부합되는 산소순도를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제안을 성공시킴으로써 질좋은 의료용산소를 생산할수 있는 탐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보조랭각기를 새로 제작하는 등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고 속도를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창의고안들을 내놓았다.

평양시의 치료예방단위들에 필요한 의료용산소를 순간도 중단없이 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의료용산소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 과정에 공장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년간 의료용산소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생산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공장은 의료용산소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여러가지 기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성천강가방공장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속에 성천강가방공장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갈 일념안고 년초부터 증산투쟁, 돌격투쟁을 벌려온 이곳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8일현재 년간계획이 115%로 완수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무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가방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또한 제품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생산품들에 대한 질평가를 바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원가를 낮추면서도 제품의 가지수를 짧은 기간에 수십가지로 늘이였다.

기술준비실, 도안창작실들에서는 기술 및 창작합정회 등 여러 제기들을 통하여 원료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었으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가방들의 도안들을 특색있게 제작완성하여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재봉작업반원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가며 날마다 생산실적을 1.2배로 끌어올렸다.

제판날염작업반과 재단작업반에서도 기대들의 운영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재단실수률을 높여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질좋고 멋있는 가방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예비를 조성하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드높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40)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전환시기판에 대한 참관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시여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호실에서 계속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3호실에 들어서니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라는 글발이 안겨들었다.

그 글발이 부각된 벽면의 중심에는 주체90(2001)년 8월 19일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여기에서 참관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기에 들어와 온 나라에 혁명적진군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오른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

당시 라남의 로동계급은 제취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결사의 각오를 안고 세계에서 몇개 나라만이 독점하고있던 기계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던것이다.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설비를 더욱 완성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후 또다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에서 만든 설비를 보아주시고 몸내 만족해하시면서 라남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당에 대한 높은 충정심과 결사관철의 정신, 투쟁기풍과 혁명적일본새를 새 세기 우리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전체 인민이 라남의 봉화따라 창조와 변혁의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칠데 대한 력사적인 발기를 하시였다.

강사는 새 세기 첫해에 라남의 봉화가 타오른것은 선군시대 혁명적대고조의 새로운 발단을 열어놓고 온 나라에 혁명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는 전환적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새 세기의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의연히 어렵고 복잡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경제건설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지 못하고있었으며 제기되는 경제적애로가 적지 않았다.

당시의 실태는 나라의 경제건설방향을 옳바로 규정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로선이야말로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이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현실적요구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임을 깊이 새겨안으며 다음벽면으로 향하였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 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글발이 부각된 벽면에는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고 당의 새로운 경제건설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자료들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었다.

자료들과 전시물들을 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이밖에도 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국토관리사업과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사적내용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로전길을 걷고걷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에 대한 해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우리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돌아본 후 다음호실에로 참관을 이어갔다.

강사는 참관자들을 《모든것을 대고조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글발이 부각된 벽면에로 이끌어갔다.

주체97(2008)년 12월 24일 력사의 땅 강선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께서 만경대고향집보다 먼저 찾으시여 로동계급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던 뜻깊은 곳, 전후 1만t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어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한 강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릴것을 결심하시고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단행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운 초고전력전기로를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이글거리는 붉은 쇠물빛에서 강선로동계급의 열렬한 애국심과 불굴의 정신력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힘차게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총진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수 있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강선에서 타오른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이것은 강선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지펴올린 거세찬 투쟁의 불길이였다.

강사의 이야기는 력사적인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선에서 타오른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력사적인 150일전투를 벌리도록 하시였다.

수천수만리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을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가시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무려 100여개 단위를 찾으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15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또다시 10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단천제련소, 룡양광산 6월5일정, 수풍발전소,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찾으시며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었다.

력사의 그 나날을 돌이켜보며 참관자들은 남들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된것은 전적으로 인민을 믿고 인민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과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가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였음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참관을 이어가는 우리의 눈앞에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은 희천발전소건설장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가 안겨들었다.

벽면은 희천발전소건설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완공할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몸소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일관되여있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볼수록 우리는 희천발전소건설의 완공을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눈물겨운 로고가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의 참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고 비날론과 주체비료생산, 내화물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호실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폭풍이 몰아치는 속에 모든 부문에서 첨단을 돌파해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강사는 우리 당의 첨단돌파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식의 CNC기술을 받아들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는것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혁명적대진군을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대진군으로 이어가도록 하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희천과 대안, 라남과 룡성, 락원과 덕천, 구성을 비롯하여 나라의 기계제작기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CNC화를 실현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기계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로 승화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해설은 참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생산과 내화물공업의 주체화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있어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참관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강원남
사진 본사기자 김광림

김 영 남 동 지 가

까메룬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야운데

까메룬공화국 대통령

뽈 비야 각하

나는 당신이 까메룬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단합과 사회적진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0월 25일 평 양

박 봉 주 동 지

만경대닭공장과 평양버섯공장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만경대닭공장과 평양버섯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만경대닭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박봉주동지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닭알생산원가를 결정적으로 낮추며 사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버섯공장에서 박봉주동지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버섯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실현에 총력을 집중하며 련관부문들에서 자재보장을 따라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한편 박봉주동지는 전국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 평양버섯공장 현지료해

잊 지 못 할 기 념 사 진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에는 후세에 길이 전할 격동적인 화폭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주체98(2009)년 7월 어느날 한여름의 무더위로 한껏 달아오른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는 환희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간석지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신것이였다.

이날 간석지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차도전망대에로 향하시였다.

전망대에 이르시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장엄하게 일떠서고있는 간석지방조제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려있었다.

건설장의 전경을 오래도록 부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이 지난해에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마치 딴 곳에 온것 같은감이 난다고, 간석지건설자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는 날을 따라 변모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격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윽토록 간석지방조제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입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평가합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오늘과 같이 날바다를 가로막고 대자연을 길들이는 기적같은 현실을 안아올수 있은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신념이 약한 일부 사람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앞에 동요하였고 다른 나라의 수리공학자들도 조선에서는 안된다고, 어림도 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간석지건설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혁명적인 조치도 취해주시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비범한 령도를 떠나 어찌 세인을 경탄시키며 펼쳐진 대계도의 거창한 현실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으랴.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완강한 투지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서해갑문에 못지 않은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낼수 있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의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영웅적조선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잘 보여준다.

날바다를 헤지르며 장쾌하게 뻗어나간 간석지방조제들을 다시금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모두 승리의 날을 약속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승리의 날을 약속하며 찍으신 그날의 뜻깊은 기념사진,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휘황찬란한 래일을 더 빨리 앞당겨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준 불멸의 화폭이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몸 소 지 펴 주 신 경 쟁 의 불 길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온넋을 불태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상업봉사기지인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고 친히 경쟁의 불길을 지펴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신것은 주체100(2011)년 12월의 추운 겨울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상업봉사기지를 돌아보시며 상품들의 가지수와 진렬상태 그리고 상품보장단위들의 상품보장정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시면서 앞으로 광복지구상업중심과 같은 상업중심들을 더 꾸려놓고 잘 운영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차례지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광복지구상업중심이 평양제1백화점보다 더 흥성거리게 하기 바란다고 믿음어린 교시도 주시였다.

이윽하여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복지구상업중심에 찾아오고 평양제1백화점에는 찾아가지 않으면 그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심술을 부릴수 있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의 해학적인 말씀에 장내에는 웃음발이 피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느 봉사단위가 사람들을 더 끄는가 경쟁해보아야 하겠다고 이르시면서 광복지구상업중심이 평양제1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일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광복지구상업중심과 평양제1백화점이 서로 경쟁하면 결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질것이라고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지도록 하는 경쟁, 인민을 위한 경쟁!

바로 여기에 어버이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경쟁의 참뜻이 있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무엇이 하나 생겨도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먼저 걱정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뜨겁게 설레였다.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불같은 정과 열로 인민을 위한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앞에 어찌 눈시울 젖어들지 않으랴.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복지구상업중심의 전체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상업봉사활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광복지구상업중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충정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정녕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여 몸소 지펴주신 경쟁의 불길속에 깃든 숭고한 뜻이였다.

본사기자 장정철

우리 당 양어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현대적인 양어기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돌아보고

대서양련어바다양어의 개척지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으며 중도반단하여도 안됩니다.》

돌로 지은 막들이 많아 석막이요, 사람 못살 막바지골안이라고 하여 석막이라 불리운 이곳, 10년전까지만 하여도 모래와 먼지만이 흩날리던 곳이 오늘은 대규모련어종어기지, 금지의 양어기지로 전변되였다.

이곳에는 가슴벅차오르게 하는 부름도 많다.

대서양련어바다양어의 개척지, 양어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종합적인 양어기지,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단위, 《물고기산원》…

평양의 대동강반에 멋쟁이로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우리 인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련어와 더불어 가슴뜨겁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수많이 안고있는 석막땅이다.

지난 7월 14일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종 기쁨에 넘쳐계시였다.

자신께서 기억하고계시는 종어장의 본래모습과 대비해보시며 3년전에 비해 몰라보게 탈라졌다고, 한폭의 그림같다고 배우 만족해하신 그이께서는 깊은 감회속에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신데 이어 탈각못에 이르시였다.

양어못이 넘쳐나게 욕실거리는 련어들, 양어못이 모자라 퇴수로에까지 꽉 차있는 물고기를 기쁨속에 보고보시며 련어를 많이 길러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보내주어 우리 인민들이 그 맛을 보게 하라고 당부하신 우리의 원수님, 그이의 심중에 과연 무엇이 가득차있었던가.

우리 원수님께서 늘 가슴속에 안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초인간적인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동해에서 대서양련어양어가 성공했다는 보고와 함께 바다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자래운 10㎏이 넘는 조선의 첫 련어를 보게 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줴기밥을 드시면서도 언제면 우리 인민들에게 련어를 맛보게 할수 있겠는가고 그리도 많이 물으시면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련어를 쓸어보시고 꼬리도 만져보시며 우리 인민들이 먹게 될 련어의 무게를 가늠하시려는듯 손에 들어보시려고 무진 애를 쓰시였다.

자신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 련어를 번쩍 들어올리고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련어를 먹게 되였다고 세계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싶다고 하실 때 일군들의 두볼로는 소리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날의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심장에 간직하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련어양어의 성공을 위해 온넋을 쟁그려 다 바쳐왔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이 한적한 석막땅에서 련어양어라는 초행길을 내디딜 때 그들의 심장속에 고동친것은 무엇이였던가.

종어장 당책임일군의 이야기를 무심히 들을수 없다.

《처음 련어양어를 시작할 때 우리들중에는 련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넘원하시고 우리 원수님께서 기다리시기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것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이나 과학기술수준으로 볼 때 련어양어를 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일축해버리며 우리 장군님 그토록 기다리신 련어를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내놓아야 한다는 하나의 의지로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일정에 없던 곳도 구석구석 놓친것이 있을세라 돌아보시던 그이께서 자동먹이공급기가 설치된 야외못들을 바라보시면서는 참으로 통쾌한 말씀을 하시였다.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뿌려주는 양어공처녀들의 모습을 달력에서나 볼수 있는 추억으로만 묻어두게 된 종어장의 새로운 풍경이 얼마나 흐뭇하시였으면 그리도 기뻐하시였으랴.

우리 인민들에게 랭동이나 절임한 물고기가 아니라 펄펄 뛰는 산 물고기를 먹이고싶으시였던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의 소원을, 련어양어를 성공시키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시면서 머나먼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며 눈시울을 적시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인민이여 아는가.

전염병으로 초래되는 물고기들의 무리폐사를 막기 위해 꾸려놓은 자외선소독실에 들리시여서도, 양어못들에 산소를 충분히 보내줄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있는 산소발생장을 돌아보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시종 환하게 웃으시였다.

련어들가운데서 대서양련어의 맛이 제일 좋다고, 당에서 대서양련어바다양어를 중시하는것도 제일 맛좋은 대서양련어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일군들은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문명의 높이,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의 높이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대서양련어바다양어를 완전무결하게 성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련어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겠다고 결의다지는 30대 초엽의 종어장 책임일군이 그리도 돋보이시여, 집을 떠나 수년세월 련어양어의 과학화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온 평범한 한 녀성과학자가 그리도 대견하시여 자신의 곁에 세워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위대한 발자취가 새겨진 종어장의 곳곳을 돌아보는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것이 있었다.

동해의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진귀한 련어를 마주하고 기쁨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들의 웃음은 진정 인민에게 무엇이든 락을 줄수 있는것이라면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돌우에 꽃을 피워서라도 다 안겨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안아올린 사랑의 결정체이며 령도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불타는 북변의 애국자들이 피워올린 충정의 화폭이다.

「석막땅이 전하는 사랑의 전설」

되돌아가신 사연

3년사이에 몰라보게 탈라진 종어장의 여러곳을 거다만 만족속에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마지막로정으로 되여있던 산소포화 및 자외선소독실을 돌아보신 후였다.

그이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는것이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알래우기실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하던 책임일군이 이제는 시간도 퍼그나 흘렀고 그곳까지는 거리가 먼데다 오신 길을 되돌아가서야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새끼련어들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자리를 뜨겠는가고 하시며 선참으로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알래우기호동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실내못들에서 욕실거리는 새끼련어들을 바라보시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우리 나라에서 미개척분야라고 할수 있는 대서양련어양어를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해내고있으니 정말 용타고 치하해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사들이 이룩한 하나하나의 성과를 그처럼 귀중히 여겨주시며 보란듯이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에 일군들은 목이 메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다.

《곁방살이》하는 칠색송어

련어떼가 욕실거리는 야외못을 돌아보신 후 산소발생장으로 향하는 자그마한 다리를 건느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퇴수로에서 헤염치는 칠색송어떼를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양수설비들이 만가동하던 때여서 퇴수로의 물살이 여간 빠르지 않았는데 물줄기를 헤가르는 칠색송어들이 마치 행렬을 짓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열을 받는것만 같아 볼수록 장관이였다.

그 모양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희한하다고, 고급어족인 칠색송어를 퇴수로에서 기르는것은 처음 본다고 하시며 지난 시기에는 칠색송어를 양어못들에서 길렀지만 지금은 련어의 마리수가 늘어나 퇴수로에서 기른다고 하는데 어제날의 《주인》이 오늘은 《곁방살이》를 하고있다고, 칠색송어가 퇴수로에 나와 《곁방살이》를 하는것은 종어장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곁방살이》를 하는 칠색송어, 정녕 이것은 천지개벽된 석막땅의 새 풍경에 대한 또 하나의 멋진 정서화였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족해하신것은 비단 종어장의 번천때문만이 아니였다.

당의 품속에서 어엿하게 자라난 일군들의 성장을 두고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대견해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하늘가득 베풀어주시였다.

이날 종어장의 일군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어장을 현대화하는데서 거둔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학력이 사람들의 실력과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될수는 없다고, 예로부터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하였는데 일단 시작한 일은 중도반단하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좋은 결심을 볼수 있다고 하시며 그를 사랑의 한줌에 안아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참으로 인민을 위한 길에서 우리 일군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일본새로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종어장의 어러곳을 놀라움과 경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던 우리가 이윽하여 발걸음을 멈춘곳은 종합조종실이였다.

종어장의 물고기자랑, 양어못자랑도 좋지만 뭐니뭐니해도 자랑중의 자랑은 세계적수준으로 올라선 양어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이라는 일군의 이야기를 흥겹게 들으며 종합조종실에 들어서니 부소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종어장에 구축된 통합조종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에서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우고 양어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종합조종실에서는 침강정들의 물온도와 양어못들의 수질상태는 물론 양수기들의 가동상태들이 련어양어에 알맞게 자동적으로 조종되고있었는데 벽면에 설치된 여러대의 액정텔레비존화면으로 그 정형이 실시간으로 현시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산소발생장에서 생산된 압축산소를 자동변을 통해 원추형포화기안에 있는 물에 포화시키는것도, 양수기로 퍼올린 물을 자외선소독기로 멸균하여 양어못들에 보내주는것도 모두 무선으로 조종되고있었다.

련어의 생태학적요구에 맞는 수질조건들이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터치는 우리에게 부소장은 현재 사료공급판리체계도 그른하게 갖추어져있어 여기서 지령만 주면 물고기들의 발육단계에 따라 사료량과 먹이주는 회수, 사료크기별로 양어못들에 설치된 사료공급기들에 사료가 자동적으로 공급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결코 기쁨으로만 대할수 없는 종어장의 가슴벅찬 오늘이라고 하면서 부소장은 눈금을 뜨겁게 적시였다.

양어분야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양어에서도 첨단을 돌파하고 패권을 쥐여야 한다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혜와 열정의 날개를 달아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처음으로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어기술과 생산설비들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순간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정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기술에 만족하여 한두해 어물어물 지내보내다가는 그것이 2~3년후에는 낡은 기술로 되고만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현대화, 과학화에는 끝이라는것이 없습니다. …

정녕 그날의 가르치심은 불소리, 새소리만 한적하게 울리던 여기 조국의 북변 석막땅에 희한한 양어전경, 물고기사태를 안아오게 한 기적의 원천이였음을 심장깊이 절감하며 우리는 분석실로 걸음을 옮겼다. 발육단계에 따르는 물고기표본들과 함께 지방추출기, 단백분석기 등 현대적인 분석설비들이 그른하게 들어앉은 분석실에 들어서니 수질분석과 사료분석, 물고기제사원인분석을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는것이 대뜸 알렸다.

바로 여기서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우리 식의 완전을 연구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부소장은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새끼련어들의 무리폐사를 막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완전을 지난 시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어를 발전시키자면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안은 이들은 완강한 투쟁을 벌려 끝끝내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물고기의 소화흡수률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익생균에 의한 사료생산체계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워놓고 련어양어에 적극 리용하고있었다.

우리 식의 기술로 기어이 련어양어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야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완강한 투쟁기풍과 억센 신념을 가슴후련히 새겨안으며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100일낮, 100일밤은 이렇게 흘렀다

우리가 종어장을 돌아본 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종어장을 찾으시였던 지난 7월의 그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이였다.

그 100일동안에 또다시 변모된 종어장의 모습앞에서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틈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거대한 야외수영장을 방불케 하는 멋들어진 수로식양어못구역이 불과 두달전만 하여도 풀대들이 무성한 곳이였다는것을 믿기 어려웠다. 3정보에 달하는 넓은 땅에 양어못이 확장되는데 따라 산소포화실과 양수장도 새로 건설되고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종업원들의 문화후생시설인 련어원도 그 이름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전하며 꽃조만 세워져있던 종전의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였다.

100일낮, 100일밤은 과연 어떻게 흘렀기에 이런 전변이 또다시 펼쳐진것인가.

책임기사 강일룡동무의 말에 의하면 수로식으로 된 대형양어못 23개를 40여일동안에 건설하는데 수백명의 로력과 수천의 세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가 들었다고 한다.

보통때에는 해를 넘기던 방대한 양어못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그야말로 번개같은 속도로 해제낀 이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심, 그들의 온몸을 불태운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종어장을 찾으신 그날 물고기들이 계속 불어나 이제는 양어못이 모자라기때문에 퇴수로에까지 물고기를 넣어기른다는 책임일군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양어못을 더 건설하도록 해주시고 걸리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사람, 그 믿음을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양어못공사가 진행되는 전기간 따뜻한 잠자리를 몰랐다. 밤을 모르는 공사장에서 울려나오는것은 신심과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 웃음소리뿐이였고 여기저기에서 나붓기는 붉은기의 펄럭임소리, 《나를 따라 앞으로!》하는 일군들의 심장의 구령소리였다.

대서양물을 통채로 옮겨와서라도 양어를 성공시키겠다며 떨쳐나서던 그 배심으로 건설을 줄기차게 내미는 속에 공사의 속도와 질을 최대로 보장할수 있는 단번휘틀공법이 나왔다. 하루밤 자고나면 길이 135m, 너비 6m나 되는 양어못이 태여났고 이튿밤을 자고나면 길이 235m나 되는 양어못이 또 자태를 드러내는 기적이 일어났다.

40여시간동안에 1 200t이나 되는 세멘트를 마대에 담아나르기를 그 몇번, 비가 오면 온몸을 화락 적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세멘트가 젖을세라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그리도 애쓴 건설자들이였다.

3년전에 왔을 때에는 건물들이 초라하고 양어못들도 적었는데 건물들과 양어못들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건설하고 록지도 잘 조성해놓았다고 치하하시며 몰라보게 변모된 모습이 그리도 만족하시여 몇번이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환하신 미소를 생각하면 힘든줄 몰랐다. 순간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온넋과 심장을 쟁그려다 쏟아부으며 이들은 충정의 100일낮, 100일밤을 이렇게 말을쳐왔다. 련어양어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해온 10년세월의 날과 달이 바로 그렇게 이어져왔다.

일을 하고 또 해도 성차지 않아

흐뭇한 새벽풍경

이른새벽 어디선가 삽질소리와 노래소리가 어울려 들려오기에 가보았더니 양수장건설장이였다. 고요할줄 알았던 어둑새벽에 뜻밖에도 정사진을 방불케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나니 놀라움은 자못 컸다. 성수가 나서 일하는 이들이 지난밤 자정이 훨씬 넘도록 작업하고 잠간 눈을 붙였던 동무들이라는것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부소장 최경일동무가 의문을 풀어주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나 일단 시작하면 불이 번쩍나게 해제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었던것이다.

《정말이지 이렇게 일해도 성차지 않습니다.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 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척척 해결하여 사업소의 보배로 불리운다는 그의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참으로 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에 수성천기슭의 새벽바람은 무척 차고 맵짰어도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양어공처녀들의 진정이 어려

얼마후 어둠의 장막이 가시여지는것과 함께 원형못, 팔각못구획들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안겨오는데 그야말로 눈이 부시는 황홀경이였다. 새 아침을 맞는 물고기들의 광경을 보고싶어 양어못으로 향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철색송어들이 꽉 들어찬 퇴수로에서 멎었다. 차디찬 물속에서 양어공처녀가 살창에 끼인 오물들을 걷어내고있었던것이다.

이런 일은 낮에 해도 되지 않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였다.

《요즘은 락엽지는 계절이여서 몇시간에 한번씩은 걷어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음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릿해졌다. 금시라도 날이 밝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양어못들을 돌아보시면 어찌는가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누군들 무심히 들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언제나 일터에 모시고 일하는 심정으로 누구도 보지 않는 이른새벽에도 티없이 순결한 진정을 바쳐가는 양어공처녀들의 모습이 종어장의 흐뭇한 새벽풍경에 흠뻑 취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우리의 귀전에 또다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문 여시고 떠나신 그 길
지금은 어데 계실가
온 나라 돌보는 발걸음소리
품에도 들려옵니다
…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 진정의 세계가 어려와 더욱 잊을수 없는 새벽풍경이였다.

글 본사기자 리동찬
본사기자 김성민
본사기자 강효심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온 나라가 떨쳐나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자

당정책관철전은 실천가형의 일군들을 부른다

체신성에서

얼마전 본사편집국으로는 개천탄광의 한 일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체신성 일군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였다. 당앞에 걸머진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줄기찬 돌격전을 벌려가는 탄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 그들의 소행을 전하고 싶어 우리는 쥐재킬에 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지난 기간 중요탄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온 체신성 일군들이 개천탄광 탄부들과 인연을 맺은것은 1년전부터였다.

비록 길지 않은 나날이였지만 당정책관철을 위해 헌신하는 성일군들의 모습은 이곳 탄부들에게 지울수 없는 추억을 남기였다.

《올해 석탄생산전투의 전기간 그들은 한전호에 서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 관점에 서서 힘을 주고 용기를 안겨준 체신성 일군들의 진정을 폐부로 느끼며 우리 탄부들은 매달 말려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군 하였습니다. …》

이렇게 서두를 뗀 탄광지배인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깊었다.

지난 4월 어느날 이곳 탄광을 찾아 성의껏 마련한 막장부속품과 공구들, 많은 량의 후방물자들을 안겨주고 돌아오는 성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들끓는 갱막장안으로 들어가 함께 일도 하며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주던 책임일군은 한 경일군을 통하여 탄광의 생산지휘에서 걸리고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였던것이다.

과학기술을 석탄증산의 열쇠로 틀어쥔 탄광일군들은 얼마전부터 생산지휘에 IP통신체계를 받아들이는 사업을 내밀고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각종 케블과 통신설비들의 부족으로 하여 이 사업은 활기있게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실은 그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지원물자나 넘겨주고 교무의 말이나 해주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생산에서 가장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어야 당의 의도대로 나라의 석탄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지 않는가.

생산지휘의 현대화실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소요량을 깐깐히 료해한 책임일군은 다음날 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열었다. 성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개천탄광에서 추진하고있는 IP통신체계화림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전국의 체신부문 현대화실현을 위해 성에서 벌려놓은 일감들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또다시 이런 통이 큰 지원사업을 조직한다는것이 정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던것이다.

하지만 성책임일군의 호소는 더욱 불같았다.

석탄생산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서 관건적고리로 된다. 지금은 천백마디의 말보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한가지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긴장한 화력탄생산과 그 수송문제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아글타글 애쓰던 성책임일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올해초 탄광에서 캐낸 석탄이 긴장한 수송조건으로 하여 제때에 화력발전소에 가닿지 못할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책임일군은 즉시 개천철도국으로 달려갔다.

적지 않은 설비들과 기술인원들을 동원하여 수송조직과 지휘에서 걸리고있던 통신보장문제를 해결한 그는 곧 화력탄수송렬차에 올랐다. 한겨울의 강추위가 온몸을 엄습하였지만 석탄을 실은 화차들이 화력발전소구내로 들어가는것을 본 후에야 발걸음을 돌리였었다.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이런 불같은 마음을 지닌 책임일군의 모범을 본받아 성일군들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하여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량의 통신케블과 수백대의 전화기, IP통신설비들이 마련되였으며 성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지원물자들을 탄광으로 보내주게 되였다.

사실 이들이 해당 설비와 자재들을 탄광에 넘겨주고 돌아선다고 하여 탓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성의 일군들은 탄광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갱내 IP통신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여 지난 5월 생산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IP통신체계가 탄광에 세워져 석탄생산에서 그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채탄막장들에까지 정연하게 뻗어간 통신체계에 의해 석탄생산정형을 실시간적으로 장악지휘할수 있게 되여 석탄생산은 종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였다.

탄전에 바쳐가는 성의 일군들과 이래탄위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은 비단 어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가정에서 준비한 후방물자들을 안고 어러차레나 채탄막장을 찾은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이야기며 석탄증산을 위해 줄기찬 돌격전을 벌려가는 탄부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탄광지구에 수자식텔레비존중계기를 설치해준 사실은 오늘도 탄부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겨가는 이들의 애국의 자욱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석탄전선을 지원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얼마전 성일군들은 수백개의 페이링을 비롯한 막장자재들을 가지고 인포성년탄광을 찾았다. 탄부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생산현장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본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석탄운반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 등을 긴급히 해결하여 보내주기 위한 문제를 또다시 토의하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어느 단위에서나 이들처럼 당정책관철전의 기수,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 탄광일을 자기 단위 일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줄 때 나라의 석탄생산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심학철

쇠바줄생산에 큰 힘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줄 철강재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히 강선의 로동계급은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탄광들에 보내줄 쇠바줄생산에 달라붙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각지 탄광들에 필요한 쇠바줄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줄 목표밑에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고 료차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들끓는 전투현장마다에서 결사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선행공정을 지켜선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고 전기로들의 용해시간을 단축하고있다. 련속조피공정을 맡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압연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강철증산성과로 당중앙을 받들어온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기풍, 창조본때로 압연강재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공정간 맞물림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가열로와 압연기들의 능력을 높이고있다. 압연공들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확보하고 설비가동률을 높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석탄전선이 들끓어야 전력생산을 늘이고 인민경제전반이 활성화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쇠바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집중적인 생산전투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특히 열처리공정을 맡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고있다.

강삭공정을 맡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질좋은 쇠바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힘찬 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강선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해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줄 쇠바줄을 비롯한 철강재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전혁철

탄전으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

성, 중앙기관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탄부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석탄전선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성, 중앙기관들에서 수십차에 걸쳐 많은 량의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여 석탄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힘있는 지원사업에 크게 고무된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드높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성, 중앙기관들의 책임일군들은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즉시 협의회를 열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들끓는 탄전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고있다.

탄전이 끓어야 인민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은 탄광지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자신들부터 직접 갱막장들에 먼저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탄부들의 가정방문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주어 그들을 증산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천성청년탄광과 조양탄광을 찾은 유원지총국과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성, 전자공업성 일군들은 막장장비들과 탄차페이링, 용접봉을 비롯한 많은 량의 설비와 자재, 물자들을 지원하여 탄부들의 투쟁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화학공업성, 영풍무역국의 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탄광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들은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절실히 필요한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아래단위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탄차페이링과 공기호스를 비롯한 많은 량의 자재, 로동보호물자들을 마련하여 개천탄광, 룡천탄광에 보내주었다.

회안청년탄광, 득장청년탄광 등 여러 단위들에 내려간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기계공업성, 로동성, 무역은행의 일군들은 맡은 탄광들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량의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들을 탄광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포청년탄광, 덕성탄광, 형봉탄광, 룡등탄광에 내려간 체신성과 림업성, 혁명사적지도국, 잠업비단공업국, 과학기술전당과 보건성의 일군들도 10여종에 달하는 자재들과 로동보호 및 후방물자들을 넘겨주고 석탄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특히 체신성과 림업성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석탄생산에서 실질적으로 걸린것이 무엇인가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탄차페이링과 정대, 정머리를 비롯한 많은 자재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석탄증산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대외건설지도국, 경풍업성, 일용품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탄광지원사업의 도수를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준

홍원갱목생산사업소 통신림산작업소에서

현지보도

산판에 높뛰는 혁신의 숨결

우리는 홍원갱목생산사업소 통신림산작업소 채벌장에 서있다.

곳곳에 나붙은 힘있는 구호들과 표어들, 운재킬을 기세좋게 달리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들, 갱싸게 일손을 다그치는 로동자들…

통밭나무증산투쟁으로 온 산판이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력량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창공을 치솟으며 키높이 자란 나무가까이로 다가간 김성찬, 리영수동무를 비롯한 나무베기공들이 기계톱을 나무밑동에 들이댄다.

윙-윙-

여기저기서 기계톱의 힘찬 동음이 울린다. 그것에서 넘길 자리를 가늠해보며 때를 기다리던 밑대공들이 떠는 나무에 힘을 가한다. 때를 같이하여 초롯한 광경이 펼쳐진다.

《또 한대 넘어간다!》

련이어 울리는 웨침에 나무들이 경쟁적으로 허공에 원을 그으며 넘어진다.

《우지끈, 쾅-》

통밭나무생산전투에 여념이 없는 벌목공들의 얼굴마다에 한대의 통밭나무라도 더 생산하여 석탄전선에 보내주려는 드높은 열의가 한껏 어려있다.

사업소지배인 한일룡동무가 아지따기공들과 함께 넘어진 나무들을 날렵한 통자으로 때끈하게 다듬는 모습도 보인다.

한쪽에서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인 김경진, 한철진동무들이 집재공들과의 협동밑에 통나무를 산지나무터로 운반해간다.

뜨락또르에 끌려 도착한 장대나무를 순간에 일정한 길이로 자른 상차공들이 숙련된 든장질로 나무를 쌓는다. 이어 산지나무터들에 들어서는 자동차들에 쉴새없이 통밭나무들을 싣는다.

《오후 4시현재 오늘 통밭나무생산계획 115% 완수》, 《계속혁신, 계속전진 앞으로!》

속보판을 바라보는 벌목공들의 땀배인 얼굴에 기쁨이 한껏 어린다. 그 벅찬 광경속에 석탄목표가 쏟아질 래일이 안겨온다.

본사기자 정경철

물동수송을 제때에

개천철도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개천철도국에서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함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급지의 탄전들에 필요한 물동을 신속히 보내주기 위한 전투작전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철도국의 책임일군들은 협의회를 조직하고 석탄전선에 필요한 물동수송이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협의회가 있은 후 일군들은 통밭나무수송을 비롯하여 석탄전선에 필요한 물동수송과 관련한 치밀한 조직사업을 두줄기 궤도우에서, 중요림산사업소들과 탄광들을 가까이하고있는 철도역들에서 힘있게 벌리고있다.

나라의 긴장한 석탄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열의밑에 철도국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기관차,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석탄전선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속속 세우고있다.

결과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철도국적으로 적지 않은 화차예비를 조성하여 통밭나무수송에 이바지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철도국일군들은 통밭나무수송이자 석탄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통밭나무수송화차들의 움직임상태를 수시로 알아보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특히 자강도림업관리국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 림산사업소지구의 역들에 나가 집신기시간을 줄이고 통밭나무를 실은 렬차들을 신속히 탄광들로 떠나보내기 위한 수송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뿐만아니라 기관차승무원들이 자겹자수를 강화하고 철길의 기술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이게 하여 굴지의 탄전들로 향한 화물렬차들이 전속으로 달리게 하고있다.

국아래 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관차의 실동률이자 중요물동수송실적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기관차운영과 수리전투를 긴장하게 짜고들고있다.

국아래 객화차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석탄전선으로 달리는 화차들의 출발과 도착검사를 신속정확히 진행하고 화차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높여 통밭나무를 비롯한 석탄전선에 필요한 물동수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석탄전선을 향하여 전속으로, 이런 불같은 열정을 안고 개천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석탄전선에 필요한 물동을 더 빨리, 더 많이 실어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국철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대외경제성에서 — 본사기자 제음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8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진정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8돐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우의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록군중장 장순남동지,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 조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중국청년간부대표단을 비롯한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 중국유학생들, 화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국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통명의로 된 화환이 우의탑에 진정되였다.

또한 인민무력성, 외무성, 인민보안성, 대외경제성, 문화성,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중국청년간부대표단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우의탑에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이날 평양시 형제산구역, 개성시, 평안남도 회창군, 안주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렬사묘들에도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들 준공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8돐에 즈음하여 평양시 강동군과 순안구역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가 렬사릉원으로 개건되였다.

렬사묘들이 개건됨으로써 공동의 위업을 위해 조선전선에서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의 고결한 희생정신과 전투적위훈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다.

준공식이 25일 강동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렬사릉원에 정렬해있었다.

도시경영성 부상 최성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강동군의 근로자들과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 중국청년간부대표단을 비롯한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 중국유학생들, 화교들, 재중동포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이어 도시경영성, 평양시인민위원회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중국청년간부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에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전선에서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며 용감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리진군 특명전권대사는 68년전 중국인민지원군이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과 어깨겯고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수호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습근평총서기동지와 김정은위원장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있는 중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성철부상은 오늘의 준공식이 조중친선의 전통을 더욱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가시려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확고한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조국땅에 어려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의 위훈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잠들고있는 조선혁명가들의 넋과 더불어 두 나라 력사에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빛날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렬사릉원을 돌아보았다.

타이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타이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타이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김제봉동지가 임명되였다.

몽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몽골을 두번째로 방문하신 30돐과 두 나라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2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있었다.

조선몽골친선협회 부위원장 조철룡동지를 비롯한 친선협회 일군들과 쏘드놈초진 쑤흐바트 몽골림시대리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진행한 다음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불같은 충정과 헌신으로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는 참된 일군

인민봉사총국 력포목장 제1분장 분장장 렴주복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인민봉사총국 력포목장 제1분장 분장장 렴주복동무는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분장장으로 사업한 지난 16년간 해마다 고기생산을 정상화하여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7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3차례나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를 분장자체의 힘으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면모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이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선봉적역할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에서 바라는 일은 죽으나사나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완강한 실천가, 실력가형의 일군, 애국자로 불리우는 렴주복동무의 삶은 절세위인들의 령도자욱이 깃들어있는 단위의 일군이라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있다.

간절한 소원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렴주복동무의 하루하루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흘러가고있다. 분장에 모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표식비와 사적건물들앞에서 그는 매일매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만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다시금 심장속에 깊이 새기고있다.

우리가 분장을 찾은 이튿날새벽에도 그는 로동자시절부터 수십년을 이어온 그 일과를 드티지 않았다.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걸을 때면 마치도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분장에 오신것만 같아 가슴이 울렁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분장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에 사는 일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장에 주신 현지교시를 자기에게 직접 주신 가르치심으로 생각하는 일군이 바로 렴주복동무이다.

우리가 분장을 찾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말도 《우리 분장의 창립일은 1954년 4월 15일입니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에 맞으신 첫 생신날, 얼마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였으면 그날에조차 정법한 돼지목장을 찾으시여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였겠는가고 외우는 그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였다. 가슴속에 이렇듯 불같은 충정을 안고 사는 렴주복동무이기에 분장장사업도 분장의 사적건물들을 더 밝고 정중히 꾸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부문당위원장 박순익동무는 신임분장장의 첫 사업은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수령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단위의 면모를 령도업적단위답게 일신하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고 추억하였다. 그때부터 분장에서는 사적건물들에 대한 보수와 관리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분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매일, 매 시각 자기들의 일터는 절세의 위인들을 모셨던 영광의 일터라는것을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단위에 주신 유훈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을 때 혁명과업수행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것이 렴주복동무의 지론이다.

그 나날에 있었던 일들가운데서 박순익동무는 한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돼지호동을 꾸리는 사업이 한창일 때였다.

어느날 한 종업원이 터실터실해진 미장면을 두고 마음쓰며 밤늦도록 재작업을 하는 렴주복동무에게 돼지우리인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가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날 작업이 끝난 후 렴주복동무는 그 종업원을 돼지호동앞으로 이끌어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59(1970)년 11월 25일 현지지도하신 호동》이라고 씌여진 현판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생산문화를 위한 사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되오. 령도업적단위의 종업원들이 하는 일은 사적지관리원들이 하는 일과 같다고 볼수 있지 않을가.》

그날 그 종업원은 분장장의 말을 들으며 한해전 사적건물주변에 감나무를 옮겨심던 때의 일을 떠올렸다고 한다.

유난히도 따스한 봄날 분장에 새로 들어온 한 종업원이 한그루의 감나무를 심어도 뿌리 하나 상할세라, 잔돌 하나 섞일세라 무던히도 마음을 쓰며 정성을 고이는 렴주복동무에게 감나무는 이런 좋은 땅에서는 잘 자라니 그렇게까지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때 렴주복동무는 우린 지금 감나무만 심는것이 아니라고, 영광의 일터를 빛내여가려는 우리 분장종업원들의 마음을 함께 심는것이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하였다.

돼지호동의 미장면 하나에도, 분장구내에 심는 한그루 과일나무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렴주복동무의 마음에 떠받들리여 분장은 나날이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였으며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설레이는 공원속의 일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목장들치고 그의 발걸음이 가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한가지 사실을 놓고도 분장을 령도업적단위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해 그가 기울인 사색과 노력에 대해 잘 알수 있다.

몇해전 분장에서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될 때였다. 모래가 바른 고장이라 렴주복동무는 공사첫날부터 모래채취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불일이 있어 분장에 달려갔다온 그는 대형삽차가 본래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모래가 다 떨어져 자리를 옮긴것이였다. 아무 말없이 삽차바가지에 가득 담긴 모래를 한줌 손에 들고 들여다보던 그는 분장으로 떠나려고 하는 화물자동차들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모래를 다시 부리기요. 질이 나빠 안되겠소.》

그러는 그를 맹랑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삽차운전수가 도로포장을 할 모래라고 하지 않았는가고 물었을 때였다.

《그렇소.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어려있는 우리 분장구내길을 포장할 모래란 말이요.》

그날부터 렴주복동무는 모래운반전투가 진행된 여러날동안을 삽차운전칸에서 내려지 않았다고 한다.

분장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양어장의 조약돌 하나에도 이런 불같은 충정과 헌신이 깃들어있다.

먼동이 터오는 이른새벽 내리는 이슬을 고스란히 맞으며 혁명사적표식비앞에 숭엄히 서있던 렴주복동무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눈에 생생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불같은 충정을 안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렴주복동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항상 곁에 계시며 분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고 생각하고있는 렴주복동무이기에 어려운 조건에서도 분장을 령도업적단위답게 현지개벽시킬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렴주복동무의 고결한 모습에서, 그가 새겨온 충정의 발자국마다에서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안고 사는 글발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충정으로 불타는 심장

단위의 모든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가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가는 과정은 곧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는 보람찬 나날이기도 하였다.

그 나날에 언제나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줄탁음친 렴주복동무였다.

지금은 24개나 되는 돼지호동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해마다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있지만 그가 분장장일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분장의 축산토대는 그른하지 못했다.

당시 고기생산계획은 수행하고있었으나 분장의 돼지우리들과 여러동의 보조건물들이 개방식으로 산만하게 널려있었다.

고기생산을 집약화, 공업화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면 그를 위한 터전부터 똑똑히 마련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하여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제남목장을 비롯한 여러 현지지도단위들을 다니며 많은것을 배웠다.

수도시민들을 위한 고기생산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목장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잠도 잊게 했고 남들이 걸을 때 늘 뛰여다니는 열정의 인간으로 만들었다.

통강의 화강석광산으로, 벽돌공장으로, 축산을 잘하기로 소문난 목장으로…

이렇게 뛰여다니며 배운 경험으로 그는 덩지가 큰 새 돼지호동들을 련이어 일떠세웠다. 그리고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들을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분장축산토대를 마련할 결심을 다졌다.

여기서 중시한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였다.

분장장인 자기부터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끊임없는 사색과 노력으로 종축체계를 바로세우고 돼지종자를 자체로 개량하여 수천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였으며 돼지의 증체률을 6개월령에 100kg이상 높이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해마다 고기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고기생산성이 떨어지는 겨울철먹이보장을 위해 수백t능력의 풀절임탕크와 무우저장탕크, 강냉이저장고와 100여㎡의 사료절임창고 등을 대담하게 건설해놓음으로써 먹이보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돼지의 과학적인 사양관리에서도 분장장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한다.

언제인가 렴주복동무가 기술학습에 강사로 참가하여 앞선 단위의 경험에 대해 토론한적이 있었는데 그날의 기술학습이 참인상적이였다고 사양공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기술학습의 내용은 젖먹는 시기 새끼돼지사양관리방법이였다.

그날 사양공들은 분장장과 함께 포유사에서 기술학습내용을 다시금 복습하고서야 퇴근길에 올랐다. 평시에는 무뚝뚝하지만 새끼돼지를 다룰 때에는 어린 자식에게 정을 기울이는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다는것이 사양공들의 말이였다. 그 모습에서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렴주복동무의 진정을 엿볼수 있었다.

렴주복동무는 국가수의방역학적요구에 맞게 분장에 수의방역시설들도 충분히 갖추어놓고 그 관리운영사업도 잘하고있다.

이렇게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사업하니 축산토대는 나날이 그른해지고 분장에는 그 경험을 배우려 다른 단위에서 찾아오게 되였다.

하지만 렴주복동무는 만족을 모른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멸고 헌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늘 마음을 따라세우는 렴주복동무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무조건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기질은 분장이 해마다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게 한 또 하나의 비결이였다.

그는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종업원들의 생활에서도 큰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의 종업원들은 생산에서뿐아니라 생활에서도 그 어느 단위보다 모범이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그는 언제나 종업원들을 아래사람으로가 아니라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고락을 같이할 진정한 혁명동지로 대하며 늘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뜨거운 인정미로 그들의 마음속생각을 헤아려보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으며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분장에는 김영심이라는 종업원이 있는데 그의 세 남매는 한때 분장장의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렴주복동무는 너희들의 부모는 우리 분장종업원들이였다. 그러니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땅히 내가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맡아안았다. 그후 렴주복동무의 진정속에 김영심동무는 분장의 믿음직한 제대군인총각과 가정을 이루었다.

그때 렴주복동무는 그들을 위해 분장자체의 힘으로 덩실한 새 집을 지어주고 앞장서서 새살림에 필요한 가정용품들도 갖추어주었다.

렴주복동무는 지난해에 100세대의 종업원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종업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라는것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우리 분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100% 관철하였습니다라고 떳떳이 말씀드리고싶은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바로 이런 불같은 충정이 분장을 생산에서도,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림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도 당당히 앞자리를 차지하는 힘있는 단위로 비약시킬수 있게 하였다.

그들이라고 남들보다 조건이 좋은것은 아니였다. 오직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를 빛내여가려는 그들을 인민봉사총국과 력포목장의 일군들이 적극 떠밀어주었다.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색가형의 일군,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나도 기어이 실천하고야마는 창조형의 일군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는것이다.

* *

이 땅 그 어디에나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령도업적단위들이 있다. 그 영광의 일터들을 지켜선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절세위인들을 모시였던 그날에 살며 헌신적으로 일한다면 기적을 안아올수 있고 부강조국의 래일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렴주복동무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헌신분투하여온 렴주복동무를 당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높이 내세워주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경일
본사기자 오은별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 1116호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여러 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는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어 새로운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170여건의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위성화상자료해석에 의한 가물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전분가제제프로그람에 의한 논벼재배의 과학화》, 《감자재배에서 유기광물질영양액의 처리효과》, 《수정아래먹임식 벼종합탈곡기의 구조개선》 등의 론문들이 리론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발표회기간 농작물육종에서 생물공학의 리용과 농업정보화의 발전추세 등 최신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한 강의를 받았으며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이 출품된 전시회장도 돌아보았다.

발표회는 농업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과학농사열풍속에 나라의 농업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백두산의 유적유물발굴에 비낀 애국의 열정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백두산현지종합탐험대, 삼지연혁명사적관의 학술연구집단이 백두산현지호반에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을 새로 발굴한 소식이 전해져 우리 인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민족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귀중히 보존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력사유적과 유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과학자들과 삼지연혁명사적관 종업원들은 삼지연군일대에서 유적발굴사업을 하고있었다.

가치있는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감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 빛나는 유서깊은 곳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이들을 량강도당위원회와 삼지연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섰다.

해당 단위 일군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보면서 실태를 료해하고 연구사업과 생활조건을 적극 보장해주며 학술연구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러한 속에서 삼지연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소백산까지 다녀오기도 하면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던 고고학자들은 백두산현지종합탐험대에서 지난 수십년간 백두산의 유적유물들과 관련한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거둔 일련의 성과들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에게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백두산에 오르며 민족의 넋이 깃든 조종의 산으로 끝없이 숭상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새로운 발굴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되여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과학자들과 백두산현지종합탐험대 성원들을 비롯한 학술연구집단은 여러 단위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백두산현지호반에서의 본격적인 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지난해 7월말 학술연구성원들이 량도봉소분지에 있는 작은 구릉에서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길이 140㎝, 너비 80㎝정도의 돌우에 새겨진 20여자로 된 글이 나졌다.

이곳에 백두산과 관련된 그 어떤 력사적사실이 깃들어있음을 예고해주는 실로 귀중한 자료였다.

새로운 신심을 안고 대학으로 돌아온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자들은 즉시 금석문에 대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러한 때 백두산현지종합탐험대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왔다.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던 곳에서 금석문을 또 발견하였다는것이였다. 이 금석문은 길이 26㎝, 너비 20㎝크기의 납작한 돌판에 먹으로 씌여져있는것인데 글자는 20여자였다.

하여 고고학자들은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옛 문헌들에 대한 자료연구에 힘을 넣으면서 한편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사회과학원 등의 학자들과 지혜와 열정을 합치며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 금석문들을 연구한데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곳에서 힘을 비는 제를 지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연구사업에 더욱 힘을 넣은 학술연구집단은 마침내 백두산현지호반의 량도봉소분지에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을 새로 발굴고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새로 발굴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의 밑면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36m정도인 4각형에 가깝고 윗면은 길이 15m, 너비 12m정도이며 높이가 9m정도이다.

지금 학술연구성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우리 인민들에게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가지고있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오철룡

일본체육대학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성원들은 또한 평양교원대학과 청춘거리 체육촌의 여러 경기관들을 참관하였다.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2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서해갑문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과는 끝까지 맞서싸워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가슴속깊이 새겨안게 하고있다.

지금 사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림명애

기술원들을 과학농사의 기수로

박천군 신평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이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농사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는 오늘 농사에서 작업반기술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박천군 신평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농장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작업반별알곡생산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기술원의 실력이자 그 작업반의 정보당 수확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다.

사실 지난 시기 일군들은 기술원들과의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다나니 일부 기술원들속에서는 자기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새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편향이 나타나고있었다. 또한 경험에 매달려 포기수를 높이고 비료를 많이 주어야만 농사가 잘되는것으로 여기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기술원들이 있는 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못한것은 물론 적극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고있었다. 결국 이런 작업반의 농사가 잘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중요한 원인은 농장일군들자신에게 있었다. 기술원들을 과학농사의 기수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방법론있게 내밀지 못한것이였다.

교훈을 찾은 일군들은 기술원들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우선 영농공정별로 조직하는 기술전습회는 물론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새 영농방법과 기술학습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원들이 실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망을 통하여 새로운 과학농사방법을 배우게 하는 사업을 자주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기사장이 책임지고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과학기술습득정형을 료해하고 총화사업을 엄격히 진행함으로써 기술원들이 학습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기술원들이 자기 작업반농장원들을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제3작업반 기술원의 사업내용을 보자. 그는 튼튼한 모를 키우기 위해 보여주기사업, 기술전습 등을 진행하였다. 포기당 대수와 평당 포기수를 얼마로 보장해야 하며 일자르기와 비료주기, 살초제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알기 쉽게 배워주었다.

이때만이 아니라 모내기, 비배관리 등 시기별로 농장원들이 정확히 인식할 때까지 해설해주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이처럼 과학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짜고드니 농장원들은 신심있게 농사일을 잘해나갈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기술원들의 경쟁열의, 사업의욕을 더욱 높여주었다.

올해농사에서 그 은이 크게 나타났다.

기술원들이 과학농사의 기수가 될 때 다수확작업반이 될수 있다. 이곳 일군들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기술원들과의 사업에 더 큰 힘을 넣고있다.

오은별

라선양로원 새로 건설

당의 은정속에 라선양로원이 새로 일떠섰다.

라선시 라진지구 청계동에 합각지붕을 떠이고 2층짜리 조선식건축물로 특색있게 건설된 양로원에는 온돌실, 미용실, 목욕실, 치료실, 오락실 등 로인들의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양로원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속에 년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건설자들은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방대한 기초굴착공사를 최단기간에 해제끼였으며 기초콩크리트치기와 골조, 지붕, 내외부미장공사 등 전반적공사를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은 타일붙이기, 창문달기, 기와씌우기 등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라진지구 근로자들과 녀맹원들도 양로원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의껏 지원하여 완공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25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라선시당위원회 위원장 신영철동지,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양로원 종업원들, 보양생들, 건설자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신영철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당과 국가의 배려속에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인 양로원들이 일떠서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이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떠받들리우며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양로원의 종업원들이 보양생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보살펴주는 혁명적도덕기풍을 더욱 확립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양로원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로므니아림시대리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므니아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게오르게 아미헤에씨이-니콜레스꾸 주조로므니아림시대리대사가 25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성 부상 박명국동지,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원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미헬라-까르멘 그레꾸 문화 및 과학외교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외무성대표단과 로므니아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로므니아대통령 클라우스 요한니스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로므니아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총련의 방문단들이 떠나갔다

조천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과 리영성학부장, 맹복실강좌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력사발전의 흐름은 되돌려세울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다.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수억만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인류력사의 전과정은 반동들이 력사발전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지만 력사는 부단히 전진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진보가 이룩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지배와 예속은 낡은 시대의 유물로서 어디서나 배격당하기마련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사회적본성에 기초한 인류의 리상이며 이러한 새 세계를 지향해나가는것은 력사발전의 기본방향이다. 인간의 사회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처럼 인류의 리상은 변할수 없으며 력사발전의 방향도 결코 달라질수 없다.

력사의 전진운동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력사발전법칙은 결코 달라지지는 않는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제국주의자들은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고 식민지제도를 유지해보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세계적범위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기반은 무너지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 력사적전환이 일어났다.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빼앗기고 력사밖에 있던 인민대중은 세계의 주인으로 당당히 등장하였다. 국제문제해결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발언권이 높아졌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싸우는 위력한 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던 발전도상나라들이 력사무대에 당당히 진출하고 국제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을 놓고 마치도 력사발전흐름의 방향이 달라진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주적인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력사의 소용돌이에 불과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좌절을 놓고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떠들면서 환성을 올렸지만 그것은 오산이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시달리고있다. 기업들이 파산되고 실업자대렬이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과업과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있다. 국제적으로도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 심화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사적우위에 의거하여 낡은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여 인민대중의 정의의 위업을 방해하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교활해지고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다른 나라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오늘 진보적인류앞에는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적인 새 세계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서 스스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화하는데서 출로를 찾으려 하면서 회유기만술책에 매여달리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자주적인 새 세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인류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면 그들에게 먹히우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허용하면 그들은 더욱더 오만하게 나온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단결해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은 불패성의 원천이며 승리의 기본담보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반제자주력량을 분렬와해시키고 편협된 세력으로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어느때보다도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세계의 모든 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위협과 압력을 받고있는 나라들이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공세에 반기를 들고있으며 경제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력사의 반동인 제국주의자들이 낡은 국제질서를 계속 유지해보려고 책동하는것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적으로 책동하여도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리 현 도

10월의 명절들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만마, 파키스탄, 몽골에서 경축모임이 7일과 9일에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만마민족민주련방기관지 《디 웨이브》 책임주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70여년의 력사를 자랑한 승리로 빛내인 당은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당으로 공인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은 수령의 령도가 당의 강화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김정일각하께서는 당을 수령의 당,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조선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데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한편 10월의 명절들에 즈음하여 말레이시아, 적도기네주에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도 5일과 9일 친선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것이다

국제의회동맹 위원장 강조

국제의회동맹 위원장 카브리엘라 무에바스 바론이 조선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얼마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긍정적인 사변들을 환영하며 조선의 북과 남이 서로의 화해와 리해를 도모하고있는것을 평가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의회동맹이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접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재미동포신문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19일 북남관계문제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미국이 《5.24조치》해제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승인타령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참을수 없는 비렬한 처사라고 밝혔다.

남조선은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이 크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외세의존사상이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이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외세가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다.

민족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추동하여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남공조를 이루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명은 떠나지만 민족은 영원히 함께 한다.

시민단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

남조선의 《MBC》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시민단체들이 지난 19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비류용범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민중의 세금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기행위를 저지른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연구사업을 맡긴것처럼 꾸미고 숨한 돈을 삼아낸 범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미군유지비부담을 반대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경남진보련합이 13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유지비부담을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단체는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때마다 남조선이 부담하는 미군유지비가 늘어나 과도하게 지출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이 해마다 전체 미군유지비의 70%이상을 부담하였고 평택미군기지건설비용도 90%이상이나 부담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그 원인으로 되는 특별협정자체가 불법으로 되여있어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의 상징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번에 진행되는 협상도 미국의 도를 넘는 고압적자세때문에 가뜩이나 고통받는 국민에게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부담을 지게 할것이 예견된다고 단체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단체는 조선반도를 전쟁준비하는 곳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흉심을 폭로할뿐아니라 국민의 리익을 지킬수 있게 사전에 이번 협상을 지켜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간섭책동을 배격하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3일 평화협정을 동본부의 성원들이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의 흉상에 불을 지르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맥아더의 흉상앞에 《미국놈 승인 필요없다. 신식민지제제 폐기하라.》는 구호가 씌여진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어 흉상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들은 격문을 통해 미국이 남조선을 신식민지로 여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력대 《정권》에 대한 간섭책동을 통해 남조선의 민주화와 인권을 짓밟아왔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미국과의 불평등한 종속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은 20일 시사평론가인 재미동포 김중산이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행위를 규탄하여 쓴 글을 실었다.

글은 최근 미국이 《5.24조치》해제문제와 관련하여 자들의 승인이 없이 남조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남조선에 대한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행위라고 하면서 글은 미국이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무력증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참여련대가 22일 국방부의 무력증강책동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12일과 19일 국방부가 그 무슨 《안보위협》에 대처하여 기동함대, 항공사령부창설과 《SM-3》요격미싸일도입을 추진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정화정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반되는 무력증강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 취소처분을 내릴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20일 청와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단체에 대한 법외로조취소처분을 내릴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이전 《정권》시기 해고된 9명이 로조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리유로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외로 되였다고 하면서 단체는 이것은 명백히 사법통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정부》가 《국회》나 사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외로조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범죄행위 폭로

22일 남조선 《CBS》방송이 군에서 성범죄행위가 만연되고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군에서 지난 3년동안 발생한 성범죄행위가 1 200건이상에 달한다고 전하였다. 특히 군의 성범죄행위로 인한 민간인피해자만도 500명을 넘는다고 방송은 지적하였다.

방송은 군에서의 성범죄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초대형해상다리 개통

중국의 광동성 주해시에서 23일 홍콩—주해—마카오대교 개통식이 진행되였다.

습근평주석이 개통식에 참가하여 대교의 개통을 선포하였다.

그는 당중앙을 대표하여 대교의 설계와 건설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총길이가 약 55㎞인 대교는 광동성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처음으로 협조하여 건설한 초대형해상다리라고 한다.

뽈 비야 까메룬대통령으로 재선

까메룬에서 뽈 비야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22일 이 나라 헌법리사회는 그가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아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전들을 복구

수리아정부가 테로분자들에 의해 파괴되였던 유전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23일 나라의 동부 데이르 알 주르도에 있는 유전에서 원유생산이 시작되였다.

사나통신은 이 유전에서 하루에 1 100㎥의 원유를 생산할수 있다고 전하였다.

중부지역에서도 여러 유전들의 복구사업이 완료되였다고 한다.

테로반대투쟁 강화

에짚트에서 최근 반테로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이 나라 군부가 밝힌데 의하면 안전군이 시나이반도의 북부와 중부지역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52명의 무장악당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와 탄약, 폭발물을 압수하였다.

또한 7개의 테로소굴과 약 80대의 통전기재를 파괴하였다.

이날 에짚트의 군사재판소는 살인과 파괴를 비롯한 갖은 테로행위를 일삼던 테로분자 4명에게 사형을, 17명에게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폭풍우와 태풍피해

이딸리아에서 21일 강한 폭풍우가 전반적지역을 휩쓸어 혼란이 조성되였다.

폭풍우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워 넘어졌으며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다.

로마와 라쩨오주에서는 때아닌 우박이 쏟아져내려 교통이 마비되였으며 농업부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3일 메히꼬의 태평양연안지역에서는 시속 240㎞이상의 태풍이 들이닥쳐 1만여명의 주민이 긴급대피하고 여러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한편 메히꼬의 오아하까주에서 18일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에 살림집이 묻혀 6명이 목숨을 잃었다.

* *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최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들이닥쳤다.

시속 249㎞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여러 주민지역이 물에 잠겼다.

전문가들은 파괴적인 태풍이 알라바마주와 죠지아주로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것으로 예견하고있다.

폭풍피해

17일과 18일 뚜니지의 여러 주에서 큰물이 범람하여 5명이 죽고 2명이 행방불명되였다.

인디아의 오디샤주에서는 열대성폭풍으로 큰물과 산사태가 나 18일현재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3억US$어치의 경제적손실이 초래되였다.

큰물

에스빠냐의 말로르까섬에서 얼마전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 피해를 입었다.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은 큰물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100여명이 긴급소개되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많은 살림집과 통전기재들이 못쓰게 되였다.

무더기비

온두라스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며칠동안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큰물이 나 8명이 목숨을 잃고 약 1 000채의 살림집이 못쓰게 되였으며 근 6 800명이 긴급소개되였다.

총피해자수는 1만 5 000명에 달하였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와 남부의 여러 지역에 경계령이 내려졌다.

여러 나라들 협조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23일 문화교류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서 쌍무협조를 강화발전시킬데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짐바브웨대통령의 잠비아방문과정에 조인되였다.

같은 날 이란과 인디아, 아프가니스탄은 이란의 차바하르항을 경유하는 화물수송통로를 설정할데 대한 합의서를 체택하였다.

* *

몽골과 필리핀이 최근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최근 수단과 남부수단은 올해말까지 국경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통과지점들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

미국의 유타통합대학에서 22일 한 남성이 맛다돌들에 녀학생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 하여 수업이 중지되였으며 대학구내에서 수색소동이 벌어졌다.

1년전에도 이곳에서 총기류범죄에 의해 23살 난 류학생이 살해되였다고 한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시에서 21일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승용차를 타고가면서 사람들에게 총사격을 가하여 6명이 부상을 입었다.

* *

영국의 런던에서 가정폭력행위가 성행하고있다.

최근 시의회가 밝힌데 의하면 시적으로 그와 관련한 신고건수가 매일 평균 400여건에 달하고있다.

* *

도이췰란드에서 승용차절도범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22일 이 나라의 보험협회는 최근년간에 그러한 범죄로 초래된 손실액이 3억 2 400만€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췰란드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 에네르기공업 등 중요분야들을 목표로 한 싸이버범죄가 우심해지고있다.

얼마전 이 나라 정보안전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의 기간에 그러한 분야들에 대한 싸이버공격행위가 적발된것만도 145건에 달하였다.

* *

이스라엘에서 6월말현재 무역적자가 1월초에 비해 4.8% 증대되였다.

16일 이스라엘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 *

일본의 도찌기현에서 얼마전 20대의 남성이 식칼로 형을 찔러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보다 앞서 지바현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가 만연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경찰청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적발된 미성년성폭화물제작 및 소지범죄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1건 늘어나 1 423건에 달하였다.

이 기간 600여명의 미성년들이 그러한 범죄에 걸려들어 피해를 입었다 한다.

한편 일본에서 9월에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 뛰여올랐다.

19일 이 나라 총무성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갈피에서

진짜 특급전범자 (2)

일제패망후에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도죠를 비롯한 전범자들은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각이한 형벌을 언도받았다. 하지만 첫번째로 짚어야 할 특급전범자인 일본왕 히로히또는 법정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전범자로 기소된 이전 시종장관 기도 고이찌가 재판정에서 히로히또가 군부에서 올려온 작전계획에 매일과 같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리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켜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는데서 《국민통합의 상징》인 일본왕을 그대로 살려두는것이 유리하다고 타산했기때문이다. 패망직후의 일본정치계도 맥아더를 대상으로 암암리에 막후공작을 벌렸다. 맥아더사령부는 최종적으로 일본왕을 살려두는것이 《20개사단의 화력에 맞먹는》 가치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히로히또를 전범자명단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놓고볼 때 도죠는 히로히또를 대신한 제물이나 같았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일제가 패망한 후 히로히또는 도죠를 만나 자기를 위해 마지막까지 《충성》다할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즉 그가 전쟁의 모든 책임을 걸머지라는것이였다.

특급전범자로 락인되여 교수형을 언도받은 도죠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지탄을 받았다. 오직 히로히또만이 도죠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한편 일제패망후 히로히또는 특급전범자로서의 자기 정체를 감추어보려고 국민들과 세계를 얼려넘기는데 몰두하였다.

《인간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일본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국가를 통치할수 있게 한 근본바탕인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변신하는 놀음을 벌렸다. 이것은 전범국의 최고통치자로서의 죄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술책의 하나였다.

히로히또는 자기에게는 군국주의군벌들의 죄임에 넘어가고 핍박에 견디여내지 못한 죄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둔갑해나섰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수감자에 불과하였다. 나에게는 아무러한 권력도 없었다.》고 횡설수설하였다. 히로히또가 자기 실록에서 《만일 전쟁을 주장하는 내각의 결정을 반대한다면 일본은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될것이였다.》고 주장한것은 자기의 죄를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게 하기 위한 간특한 말장난질에 불과한것이였다. 일본의 보수적인 력사학자들은 히로히또를 아무런 실권도 없었던 《허수아비군주》로 묘사하면서 전쟁책임을 도죠내각에 전부 넘겨씌웠다.

히로히또가 아스구니진쟈에 도죠를 비롯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옮겨진 사실이 폭로되자 그에 대한 참배를 중지한것도 자기의 행적이 특급전범자들과 련루되는것을 두려워한 의식적인 회피였다.

하지만 력사적진실은 히로히또야말로 전쟁을 반대한 군주가 아니라 반대로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을 명령하고 그 과정을 총괄한 제일가는 특급전범자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히로히또가 저지른 죄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일본이 조선에서 감행한 모든 반인륜적죄악은 물론이고 다른 아시아나라들에서 저지른 온갖 치떨리는 만행의 막뒤에는 언제나 일본왕 히로히또가 있었다.

피비린 악행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하고 전범자재판에서까지 빠져나와 어영을 편안히 보낸 히로히또는 마땅히 세계의 정의와 량심의 규탄과 징벌을 받았어야 했다.

침략전쟁의 원흉이였던 일본왕 히로히또는 1989년 1월에야 죽었다. 오늘도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가슴속에는 그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있다.

본사기자 안철권

세계상식

사라진 군사기구들

와르샤와조약기구

1955년 5월 14일 평화와 안전,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의하여 조직되였던 군사정치동맹이다.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는 이전 쏘련,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마쟈르, 벌가리아, 민주도이췰란드를 성원국으로 하였다.

기구의 기본사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성원국들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위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쏘련이 붕괴되고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파괴되자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1991년 3월 31일 와르샤와조약기구해체가 선포되고 7월 1일 프라하에서 와르샤와조약의 효력을 중지할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그리하여 나토를 전제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공동방위를 위해 36년간 활동한 기구는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세아토)

동남아시아지역에 조직되여있던 군사동맹이다.

나토, 쎈토와 함께 미국의 전략실현의 한 도구로서 1954년 9월 8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체결된 《동남아시아집단방위조약》에 따라 조직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파키스탄을 성원국으로 하였었다.

기구내에서 점차 미국의 명령지휘체계가 통하지 않고 행동의 통일성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들이 기구에서 탈퇴함으로써 자기 사명을 다할수 없었다. 1977년 5월 30일에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중앙조약기구(쎈토)

중동지역에 조직되였던 침략적군사기구이다.

1955년 11월 미국과 영국에 의하여 발족되였다. 발족당시 영국, 튀르끼예,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가 망라되였으며 본부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두었다.

생겨난 첫날부터 중동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전횡과 강권에 대한 성원국들의 반발과 내부모순으로 하여 무때한 존재로 되였다.

1979년 9월 26일 기구는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본사기자 박예경

과학기술소식

새로운 짚덮기경작방법

어느 한 나라에서 새로운 짚덮기경작방법을 도입하여 심한 가물을 극복하였다고 한다.

그 방법은 작물의 짚으로 땅을 덮고 밭을 갈지 않거나 적게 가는것이다. 올해 여름 심한 가물현상이 나타났지만 짚으로 땅을 덮어주어 토양의 수분을 보존하였다.

짚덮기경작방법은 짚덮기, 생땅씨뿌리기, 화학살초, 돌워갈이의 4단계로 나뉘여져있다.

연구사들은 이미 각이한 생태류형에 적합한 짚덮기 및 생땅씨뿌리기기술을 완성하였다. 짚덮기경작방법이 시범적으로 보급된 지역의 토양을 검사한데 의하면 강냉이짚을 덮어준 땅에서 토양의 유기질함량과 굳기 등의 지표가 원래의 토양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였다. 즉 이 방법을 도입한 밭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였다.

이 방법을 리용하면 2~5개의 작업공정을 단축하고 농기계의 작업회수를 3~7차례 줄일수 있다. 또한 토양속의 수분함량을 평균 14~17% 높일수 있으며 질을 해우지 않으므로 환경을 보호하고 짚운반비용도 절약할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한다.

본사기자

ㄱ-1811704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판매등록번호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